

보도설명자료 (17.8.1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아무때나 절전해도 보조금.. 상설 절전시장
열린다. (17.8.12, 머니투데이)

○ 추후 시범사업의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 도입 여부 등을 논의
할 예정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남경모 과장 (044-203-5260)
김광수 사무관(044-203-5261)
전력산업과 최우석 과장 (044-203-5240)
임기홍 사무관(044-203-5254)

1. 기사내용

- ☐ 일반가정도 전기를 아낄 경우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고, 급전지시
여부와 상관없이 전력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받게 됨
- 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요반응 시장 규모를 7GW로 1.7배
확대하고,
 - 전력피크 시기가 아니어도 계약을 맺은 기업이나 가계가 전력소비를
줄이면 보조금을 주는 연중 DR 시장을 운영할 계획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산업부는 전력 수요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현재 4.3기가와트
(GW)인 수요자원(DR)시장 규모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
계획이며,
 - 이를 민간 전문가 자문그룹에서 현재 논의중임
 - 그러나, 상설시장화, 보조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규모와 방법에
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음
- ☐ 일반가정도 참여할 수 있는 ‘국민 DR’은 2016년에 실증사업을 시작
하여 2018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바 ,